

“수사절차 잘못”... ‘친부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광주지법 해남지원, 복역 중 수형자로는 처음 무죄 증거 받아들이지 않아 형집행정지는 불허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8개월째 복역 중인 김신혜(여·38)씨에 대한 재심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복역 중인 수형자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다.

법원은 당시 경찰 수사의 절차가 잘못됐으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형집행정지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유·무죄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하되, 석방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3월 이내에 재심 개시 판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으면, 김신혜 사건은 다시 심리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이날 재심 개시 이유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최창훈 지원장이 20여분간 직접 발표했다.

최 지원장은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다. 또 경찰이 김씨가 현장 증권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으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까지 일지

2000.3.7	전남원도군정도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김씨의 아버지 김순진 씨 발견
2000.3.9	경찰,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김씨 긴급체포
2000.4.1	검찰, 존속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
2000.8.31	광주지법 해남지원, 무기징역 선고
2000.12.28	광주고법, 김씨 항소 기각
2001.3.23	대법, 김씨 상고 기각
2015.1.28	김씨-대한변호사협회 재심 청구
2015.5.13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청구 심문
2015.11.18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 개시 결정

최 지원장은 “당시 경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 지원장은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최 지원장은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아버지의 성추행이 없었다”, “보험금 수령 목적이 없었다” 등 김씨의 주장이나 새롭게 제출



“난, 억울해요”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 8개월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여·38)씨가 18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재심청구에서 ‘개시 결정’을 받은 뒤 구치감을 빠져 나오고 있다. /해남=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 증거들은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는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구성된 ‘김신혜 재심 변호인단’은 “사법상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강문대·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개시 결정 직후 해남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개

시 결정은 사법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형 집행정지를 하지 않아 김씨를 석방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법원이 재심사유를 너무 좁게 인정했다”며 “15년8개월 복역이라는 현실을 외면하는 등 인권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해남=박정욱·박희석기자 jwpark@kwangju.co.kr

검찰 3일내 항고...2심 불복하면 대법까지 가야

보석 받아들여지면 15년만에 풀려나 재판 받아

향후 재판 절차는?

법원이 ‘김신혜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 재판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하게 된다. 항고하면 2심(광주고법)에서 다시 ‘재심 개시’ 여부를 따지게 되고, 2심 결정에 대해서도 검찰 또는 김씨 측 어느 한 쪽이 불복하면 3심(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된다.

반대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즉각 재심이 개시돼 김씨 사건은 사건심리 등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게 된다. 재심이 개시되면 변호인단은 김씨에 대해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씨는 15년여 만에 영에(囹圄)의 몸에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된다.

김씨는 또 재심이 이뤄질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의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재심 개시 결정에서 보듯 재판부는 매우 보수적인 판단을 했다”며 “김씨와 혐의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국민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본원인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보험금 노린 살인 vs 부실수사 희생양

재심 쟁점은?

‘김신혜 사건’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면 검찰과 변호인단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가’ 대 ‘부실 수사 희생양인가’라는 논리로 유·무죄를 다시 다투게 된다.

재심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부실 수사 여부 ▲범행 동기로 지목된 ‘아버지 성추행’ 여부 ▲범행 목적인 ‘보험금 수령’ 여부 등이다. 김신혜 씨는 재심 청구 이유에 대해 당시 경찰은 수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면유도제 등 2건에 대해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모부의 증언이 허위라는 주장이다. 김씨 측은 재심 개시 결정이 원인 경찰의 강제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출발한 수사보고서가 사건 본

부친 성추행·보험금 수령 등

물적증거 유무도 공방 예상

질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해 동기와 목적도 뜨거운 공방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는 성추행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께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는 말을 들은 김씨가 자신도 중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던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살해 목적은 ‘사망 보험금’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고모부가 ‘추행을 당했다고 말해야 형량이 가벼워진다’고 해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험금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아버지는 3급 장애인으로 이를 숨기고 보험 가입을 했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실사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가입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데 아버지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판단한 사실관계에서 ‘물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증거불이 없기 때문에 ‘유죄인가’, ‘무죄인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F1 조직위가 빌린 BMW

침수고장 구상금 소송 당해

F1 대회조직위원회(이하 F1 조직위)가 지난 2011년 시승 행사를 위해 빌린 BMW 승용차의 ‘침수고장’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18일 F1 조직위에 따르면 F1 조직위는 2011년 F1 대회 시승을 위해 BMW 코리아(주)로부터 BMW 승용차 3대를 빌렸다. BMW 승용차 3대 중 1대가 F1 경기장 주변 도로를 주행하다 갑자기 멈춰섰고 이후 운행이 되지 않았다.

이에 BMW 코리아는 “침수피해로 고장이 났다”며 보험회사인 메르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자동차 수리비로 보험금 43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장성·장흥서 교통사고

2명 사망·8명 부상

장성과 장흥에서 잇따라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8일 새벽 2시27분께 고창-담양 간 고속도로 하행선 장성분기점에서 오토(59)씨가 몰던 스타렉스 차량이 앞서가던 김모(39)씨의 4.5t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최모(여·53)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오토 등 스타렉스 차량 탑승자 7명과 트럭운전자 김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스타렉스 차량 탑승자 8명은 일가족으로, 이날 제사를 모시기 위해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고 알려졌다. 앞서 이날 새벽 1시33분께 장흥군 대덕읍 한 도로에서 강모(49)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편의점 벽을 들이받아 강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기습 음주단속 36명 무더기 적발

○연말을 앞두고 광주경찰이 새벽 3시간 동안 기습적으로 벌인 특별 음주 단속에 ‘술꾼’ 36명이 무더기로 적발

○1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5개 경찰서가 일제히 음주 단속을 한 결과, 면허 정지(혈중 알코올농도 0.05~0.1% 미만) 28명, 면허취소(≧0.1% 이상) 8명 등 36명을 붙잡는 ‘전과’를 올렸다는 것.

○술을 들어 현재까지 광주에서 음주 운전자가 저지른 사망사고 11건 가운데 7건이 심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경찰은 “교통 경찰에 기동대까지 추가 지원해 음주 운전하면 반드시 경찰에 걸려든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때까지 음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엄포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무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